



제08호 / '16.6.9(목)

지부교섭 속보

기본급 152,050원 인상!
취업규칙 개악 저지!
노동자 건강권 쟁취!
일반해고 금지!
조합활동시간 보장!

□발행처:선전부 □발행인:김정태 □주소: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060번지 근로자복지회관 2층 □전화:043-236-5077 □http://dc.kmwu.kr

‘제시안 없음’ 이 올해 사측의 첫 제시안

1차 제시안 나왔지만..

9일(목) 한온시스템에서 8차 지부교섭이 열렸다. 사측은 첫 제시안을 제출했다. 지난 교섭에서 교섭이 진전되려면 사측 제시안이 나와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던 점을 의식해서인지 제시안을 들고 나왔다. 물론 회사 간 의견 조율이 어려웠기 때문에 기대에 못미치는 내용일 수도 있다고 사전 양해를 구했다. 첫 제시안인 만큼 지부 교섭위원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닐 것으로 예상됐다. 그러나 그 내용이 너무 실망스러웠다. 기대에 못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지부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.

지부에 대한 예의 없는 제시안

1. 2016년 임금인상 : 추후 제시
2. 취업규칙 및 제규정 개정 절차
: 회사는 2016년 개정 단체협약 체결 시 취업규칙, 사규 등 제 규정을 개정된 단체협약 내용으로 개정하도록 노력한다.
3. 노동자 건강권 요구
: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 그 발생 개요, 원인을 규명하며 고의적으로 은폐하지 않는다.
4. 일반해고 금지
: 회사는 조합원 또는 조합의 협의 없이 배치전환을 실시하지 아니한다.

5. 조합활동 보장 : 제시안 없음

6. 별도 요구안 : 제시안 없음

사측이 제시한 내용을 보면 최소한의 예의도 없다. 몇가지 제시된 내용은 형편없는 수준이고 2가지 요구안에 대해선 당당하게 제시안이 없다고 내뱉었다.

단협이 체결되면 취업규칙 등 사규는 단협 내용대로 개정되어야 한다. 만약 개정되지 않아도 법적으로 단협의 효력이 우선이다. 그러니 취업규칙 등을 단협 내용으로 개정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자는 요구안인데도 ‘노력한다’고 한 것은 아주 실망스럽다.

일반해고 금지 요구에 대해서는 조합원 또는 조합과 ‘협의’없이 배치전환을 실시하지 아니한다고만 했다. 해고를 전제로 하는 업무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내용은 아무런 언급조차 없었다.

더 가관인 것은 조합활동 요구안과 별도 요구안에 대해선 아예 ‘제시안 없음’으로 낸 것이다. 추후 제시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예 제시안이 없다는 것은 요구안을 철회하라는 말과 같다.

발전적인 안 갖고 와라

첫 번째 제시안에 많은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만, 너무 심했다. 이런 내용이라면 올해 교섭은 심각하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. 차기 교섭에서는 훨씬 더 발전적인 내용이 나와야 할 것이다.

8차 교섭 속기록

이런 제시안은 지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!

노 : 한온시스템 사장님은 바쁘신가? 얼굴을 한 번 볼 수가 없다. 오늘 사측 제시안을 기대해보겠다.

사 : 4월 말부터 7차례에 걸쳐 회사별로 돌아다. 최근 신문지상에서 조선 업종 등이 어수선한 상황인데, 기업이 미래경쟁력을 잃으면 회사나 조합원이나 다 어려움을 겪는다. 노사가 정말 상생해서 경쟁력을 갖추면 좋겠다. 오늘이 단오다. 단오절이 1년 중 가장 양의 기운이 강한 날이라고 한다. 교섭도 좋은 기운을 받아서 잘되면 좋겠다.

지난 주에 저희가 오늘 안을 제시하기로 했는데, 다소 내용이 조합 기대에 못미치는 안이 될 수도 있다.

< 1차 제시안 제출 >

노 : 제시안을 검토해봤는데 실망스럽다. 노사 상생하자고 하더니 이걸 상생하지 말자는 소리 같다. 제시안이 없다고 한 것은 이후에 안을 내겠다는 것인지 분명한 의사도 없다. 나온 안을 보니 올해 교섭 힘들 것 같다.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안이다. 최소한 저희 단협 보다 후퇴한 안을 내면 안된다. 이걸 지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. 최소한 사용자들이 지부를 인정한다면,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. 차기에는 좀 더 발전적인 안을 기대하겠다. 오늘은 이만 교섭 마치겠다.

사 : 좀 더 보충해서 다음 차수에는 나은 안을 제시하겠다

사회 : 차기 교섭은 6/16(목) 15시 보쉬에서 진행하겠다.

※ 매주 (목) 지부교섭이 열리는 날 재벌개혁 실천단 활동을 병행합니다.



(6/9 신탄진 사거리 선전전)